

노생면수도 전북에
규립 농업 전문직업체협관 조성하자!

ISSUE
BRIEFING
2018

ISSUE BRIEFING 2018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8.09.13 vol.179

www.jthink.kr

연구진
이상재 지역개발연구부 연구위원
한국환 지역개발연구부 연구원

ISSUE BRIEFING 2018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8.09.13 vol.179

CONTENTS

농생명수도 전북에 국립 농업 전문직업체험관 조성하자!

I. 대한민국 농업,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다	
1. 농업의 위기	4
2. 농업의 도전	5
II. 미래 주역, 청소년은 농업·농촌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	
1. 직업 선호도	7
2.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	8
III. 국내 직업체험관은 농업의 미래가치를 수용하기에 부족하다	
1. 국내 직업체험관	9
2. 국내 직업체험관의 한계	11
IV. 농생명수도 전북에 국립 농업 전문직업체험관 필요하다	
1. 전북 입지 타당성	12
2. 농업 전문직업체험관 조성(안)	13



9 772508 688004
ISSN 2508-688x

발행인 김선기

발행처 전북연구원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취발췌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농생명수도 전북에 국립 농업 전문직업체험관 조성하자!

- 한국의 농업은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지속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작목재배 적지 변화, 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 등에 따라 새로운 도전에 직면
-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은 농업에 대한 직업선호도와 농촌에 대한 정주의식이 매우 낮아 국가단위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건전한 직업관 형성 필요
 - 한국의 농업경쟁력 평가는 20대에서 최하위이며, 대학생의 미래 농업 관련직 수요는 매우 미미, 초·중·고등학생의 농업 관련 희망직업은 순위권에서 전무
- 국내에는 한국잡월드(경기), 키자니아(서울·부산), 키즈앤키즈(서울) 등 다양한 직업체험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초등학생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과 종합적 성격의 체험관으로 농업 관련 전문적 직업체험은 한계
- 전북은 농생명 특화지역으로 농생명 직업 관련 인프라가 우수하여 농업 전문직업체험관의 최적지로 평가
 - 농생명 융합산업 중심의 연구개발특구 지정, 19대 대선공약으로 추진중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정부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 등 농생명 특화지역으로 부상
 - 농촌진흥청 등 농업연구기관과 한국농수산대학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농업의 전후방 연계 기관들이 소재하고 있어 농생명 직업 관련 인프라 우수
- 농업 전문직업체험관의 기본방향은 농업을 넘어 혁신산업 체험, 전북의 농생명 특화자원 연계·활용, 직업체험의 지속적인 리뉴얼 및 현장체험으로 설정
- 주요시설로 농업 직업정보관, 농업 진로탐색관, 농업 직업체험관, 직업 설계관 등을 제시
 - 주요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혁신농업 존(스마트농업, 정밀농업, 치유농업), 사회적농업 존(도시농업, 사회적경제, 자원순환), 미래농업 존(우주농업, 바다농업, 극한지 농업), 플래너 존(귀농귀촌, 협동조합, 팜파티, 농촌교육농장, 농가카페), 국가 전문기술자격 존 등을 제안

I. 대한민국 농업,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다.

1. 농업의 위기

□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가속화

- 농가인구는 '10년 306만명에서 '17년 242만명으로 20.9% 감소하고, 65세이상 농가경영주 비율은 2010년 46.4%에서 2017년 58.2%로 11.8%p 증가
 - * 농가인구 : (2010년) 306만명 → (2013년) 285만명 → (2015년) 257만명 → (2017년) 242만명
 - * 65세이상 농가경영주 비율 : (2010년) 46.4% → (2013년) 53.5% → (2015년) 53.5% → (2017년) 58.2%
- 청장년 농가 비중이 감소하고 평균연령이 증가하는 반면, 고령 농가 비중은 증가하고 평균연령 또한 고령화 추세

〈농가유형별 변화 추이〉

농가유형	비중			평균연령		
	2008	2016	증감	2008	2016	연평균증감률
청장년(소농)	40.0	35.8	-4.2	59	61	0.4
청장년(중대농)	26.4	16.8	-9.6	58	61	0.6
고령(소농)	26.5	37.2	10.7	74	77	0.5
고령(중대농)	7.2	10.1	2.9	73	75	0.3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 제21회 농업 전망

- 특히 청년농의 경우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감소시 2020년에는 전체 농가 대비 0.67%인 6,889호, 2025년에는 전체 농가 대비 0.38%인 3,725호로 축소될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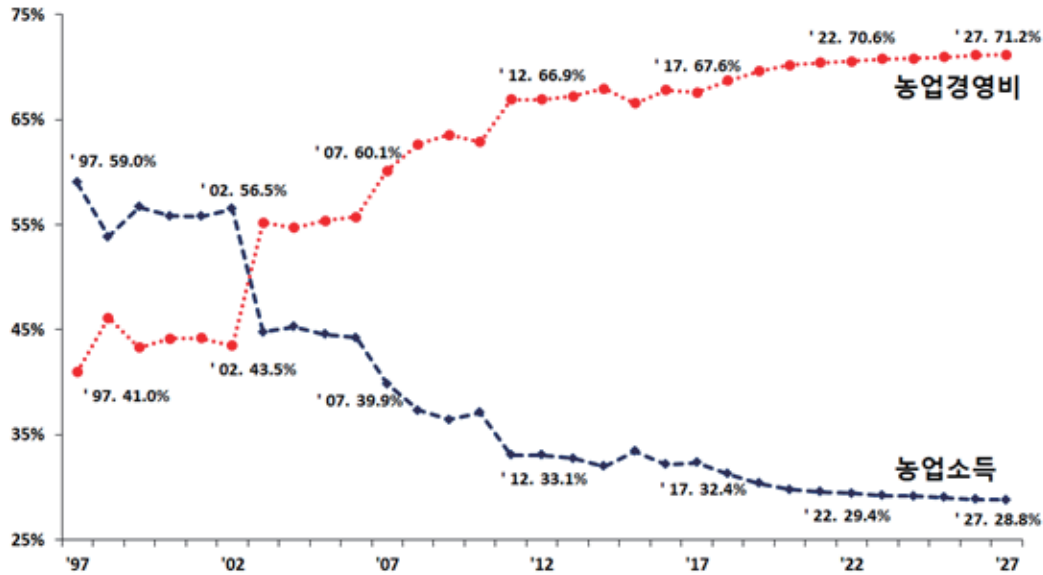
□ 농업에 대한 직업 만족도 저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농민들이 생각하는 농업에 대한 만족도는 2011년 81.3%에서 2017년 41.5%로 지속적인 하락
 - * 농업에 대한 직업 만족도 : (2011년) 81.3% → (2013년) 73.6% → (2015년) 64.7% → (2017년) 41.5%

□ 한국농업의 지속적 성장은 한계에 직면

- 1995년 이후 농가당 농업소득은 농업경영비의 지속적 증가로 정체
 - * 농업경영 비중 : (1997년) 59.0% → (2015년) 66.6% → (2017년) 67.6%
- FTA 이전(1992년~2003년)에는 평균 4.0% 증가했으나, FTA 이후(2004년~2015년)에는 평균 1.9% 성장

〈농업소득과 농업경영비 비중 전망〉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 제21회 농업 전망

2. 농업의 도전

□ 감성사회로의 전환과 농업수요 증대

- 최근 ‘삼시세끼’, ‘효리네 민박’ 등 농업·농촌을 기반으로 한 TV 예능프로그램은 감성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는 사례로 농업·농촌은 다양한 감성가치를 보유하고 있어 성장가능성 양호
- 세계 인구의 증가 전망에 따라 식량·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산물 생산량 증대 요구

□ 농업으로 확장되는 4차산업혁명 기술

- 대한민국 농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녹색혁명(통일벼 개발로 주곡 자급), 백색혁명(비닐하우스로 연중 채소 공급) 등 기술과 경영능력 향상
- 농업·농촌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
- 토지와 인력에 의존하던 전통농업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 결합되면서 스마트한 농업으로 진화 중

II. 미래 주역, 청소년은 농업·농촌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

1. 직업 선호도

- 매일경제신문에서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미래직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IT관련 직업과 안정적 직업이 인기(매일경제신문, 2016년)
 - 10년 뒤 인기 직업은 IT·로봇 엔지니어(25.5%),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21.7%), 빅데이터 전문가(12.25), 의사(11.3%) 순으로 나타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미래 직업을 결정한 대학생의 ‘미래 희망 직업’에서 농업 관련직 수요는 매우 미미

〈대학생의 미래 희망 직업〉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전문대	4년제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10.5	28.8	8.5	30.5
보건·의료 관련직	18.4	5.1	9.3	4.2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14.0	9.7	11.2	11.3
관리직	12.0	7.6	15.0	4.6
기계 관련직	14.4	3.8	3.1	3.4
:				
정보통신 관련직	3.4	9.5	4.0	3.5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5.7	1.4	5.8	3.5
음식 서비스 관련직	5.0	0.2	1.0	0.7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2.9	6.8	3.2	9.8
:				
농림어업 관련직	1.1	0.0	0.5	0.2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5), 한국교육고용패널 기초분석보고서

-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학생의 희망직업은 교사가 1위이며, 순위권 내 농업 관련 직업은 전무
 - 초·중·고등학교별 다소 차이는 있지만 경찰, 군인,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과 의사, 요리사·셰프, 건축디자이너 등 전문 직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학생의 희망 직업〉

순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07년	2017년	2007년	2017년	2007년	2017년
1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2	의사	운동선수	의사	경찰	회사원	간호사
3	연예인	의사	연예인	의사	공무원	경찰
4	운동선수	요리사 · 셰프	판검사 · 변호사	운동선수	개인사업	군인
5	교수	경찰	공무원	요리사 · 셰프	간호사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6	판검사 · 변호사	가수	교수	군인	의사	건축가 · 건축디자이너
7	경찰	판검사 · 변호사	경찰	공무원	연예인	의사
8	요리사	프로 게이머	요리사	건축가 · 건축디자이너	경찰	컴퓨터공학자 프로그래머
9	패션디자이너	제빵원 및 제과원	패션디자이너	간호사	공학 관련 엔지니어	교수 · 학자
10	프로게이머	과학자	운동선수	승무원	패션디자이너	승무원

자료 :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 초·중·고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보고서

-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 희망하는 직업에서 농업 관련직은 수요가 매우 적으며, 안정성 또는 전문성이 강조된 직업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 관련 직업의 발전가능성 및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한 정책 필요

2.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과 귀농·귀촌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저조(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년)
 - 선진국 대비 한국 농업·농촌에 대한 평가에서 20대의 경우 농업경쟁력 부문에서 최하위 점수(기타 연령층에서는 정주여건 부문이 최하위)
 -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은 평균 41.3%*가 관심이 있는 반면, 19세~29세 계층은 26.1%에 불과
- * 귀농귀촌 의향 : (2006년) 71.3% → (2010년) 47.73% → (2016년) 41.3%
- 바람직한 미래 농촌 모습으로 30대와 40대는 물론 20대에서 ‘청년이 일할 수 있는 농촌’을 선호

Ⅲ. 국내 직업체험관은 농업의 미래가치를 수용하기에 부족하다.

1. 국내 직업체험관

1) 한국잡월드(경기도 성남시)

□ 개요

-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 제공과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조성한 고용노동부 산하 국립직업체험관(2012년 5월 개관)
- 방문객 : 연 평균 800,000명

□ 주요시설

- 직업체험관(청소년·어린이), 직업설계관, 진로설계관, 편의시설(유아놀이실, 푸드코트, 잡카페, 노천카페 등)

□ 체험 프로그램

- 청소년체험관 : 공공서비스(항공사, 소방서, 과학수사센터 등), 경영금융(인터넷쇼핑몰, 증권회사 등), 문화예술(패션쇼장, 방송사, 한지공예방, 게임개발회사 등), 과학기술(우주센터, 로봇공학연구소, 국토정보센터 등), 기획체험(바리스타, 학교교사, 웹툰작가)
- 어린이체험관 : 현장형(소방관, 드론개발자 등), 탐구형(녹색건축전문가, 로봇개발자 등), 예술형(복디자이너, 애완동물미용사 등), 사회형(사회복지사, 신생아실간호사 등), 진취형(파티플래너, 푸드스타일리스트 등), 관습형(은행원 등)
- 직업세계관 : 미래직업 Lab 전시해설(인공지능로봇존, 3D 프린팅존, 스마트시티 등), 4D 영상관, 공존현실 미래직업 체험(해상도시), 심포니아(작업현장 영상)
- 진로설계관 : 놀이형 직업적성 검사, 온라인 직업심리 검사, 친구와 함께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

□ 기타 프로그램

- 조이(Job Money) : 어린이체험관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체험 종료 후 조이를 받고 어린이 체험관에서 사용

- 수료증 : 체험실에서 체험 종료 후 받고 54장을 다 모으면 퍼즐처럼 미로 직업마을 완성 및 선물 증정

□ 협력 파트너사

- 국가 · 공공기관 : 고용노동부, 정부 24, 청년취업아카데미,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한국국토정보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 기타 :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폴리텍대학, 한글과컴퓨터, 금호타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 현대, 한화호텔&리조트, 모나미, MG새마을금고, 아워홈 등

2) 키자니아(서울시 송파구, 부산시 해운대구)

□ 개요

- 어린이들이 현실세계의 직업을 체험해볼 수 있으며, 어린이 눈 높이에 맞춰 실제의 2/3크기로 제작된 직업체험형 테마파크, 국내 서울점(2010년 5월 개관)과 부산점(2016년 4월 개관) 운영 중
- 운영 : MBC 플레이비(서울 · 부산)
- 방문객 : 연 평균 1,200,000명(서울·부산), 누적방문객 6,000,000명

□ 주요시설

- 체험시설, 편의시설(은행, 백화점, 카페테리아 등)

□ 체험 프로그램

- 상상력(마술학교, 연기학교 등), 탐구심(과학수사대, 로보틱스 연구소 등), 배려심(경찰서, 동물병원, 호텔 등), 표현력(법원, 신문사, VR 여행연구소 등), 경제(관세청, 국세청, 마트, 은행 등), 책임감(경찰서, 소방서 등), 활동력(스포츠플렉스 등), 만들기(도넛가게, 라면연구센터, 바른먹거리 스쿨, 소시지 마이스터 랩 등)

□ 기타 프로그램

- 키조 : 어린이들이 흘린 땀으로 모아지는 키자니아 화폐로 키자니아 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 현금카드를 받고 현금인출기에서 키조를 인출해 지역화폐처럼 사용
-

□ 협력 파트너사

- 국가·공공기관 : 관세청, 국체성, 동물자유연대, 유니세프,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이브더칠드런
- 기타 : (금융) 롯데카드, 신한은행, (미디어·서비스) 대한항공, 중앙일보, G마켓, MBC, 신세계백화점, (식품) 농심, 던킨도너츠, 롯데제과, 서울우유, 오투기, 파리바게뜨, 풀무원, (유통·제조) 동아제약, 메르세데스-벤츠,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이마트, (헬스·교육) 동화약품, 에이스침대, 함소아 한의원 등

2. 국내 직업체험관의 한계

□ 대상 : 청소년 보다는 어린이 중심

- 국내 직업체험관은 초등학생 중심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대상 실효성 있는 직업체험에는 한계
-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진학할수록 희망직업이 보다 현실화되는 특성 고려 필요

□ 프로그램 : 전문성 보다는 다양성 중심

- 한국잡월드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수가 41개, 키자니아는 72개, 키즈앤키즈는 24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중
- 반면, 기존 체험관은 종합적인 형태의 체험관으로 직업체험관에 방문하는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통해 구체적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는 전문성 미흡

□ 콘텐츠 : 내부 확정형(모의체험)으로 외부 확장(직접체험)에 한계

- 종합적 성격의 직업체험관은 확정된 직업 콘텐츠로 인해 청소년의 수요에 대응하여 가변적인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제공하기에 한계
-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외에 외부 공간으로 확장하여 인근 현장에서 실습형태의 체험 진행시 효과적이고 체감형 교육 가능

IV. 농생명수도 전북에 농업 전문직업체험관 필요하다.

1. 전북 입지 타당성

□ 전북은 농생명 특화지역

-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2014년 3월 발표한 ‘시도 특화발전프로젝트’에서 전북은 농생명 허브로 선정

* 시도 특화발전프로젝트 : (부산)영산산업, (대구)SW융합, (인천)서비스산업, (광주)문화콘텐츠, (대전)국방ICT융합, (울산)친환경전지, (경기)접경지역생태평화벨트, (강원)건강생명, (충북)바이오밸리, (충남)디스플레이, (전북)농생명허브, (전남)해양관광, (경북)IT융복합, (경남)항공, (제주)용암수융합

-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농생명 융합산업의 거점기능 강화

- 전북 혁신도시와 정읍시 및 완주군 일원이 2015년 8월 융복합 소재·부품산업과 농생명 융합산업을 테마로 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

- 19대 대선에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프로젝트가 전북지역 공약사업으로 반영되어 추진 중

- 5대 농생명클러스터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밸리로 육성하여 농생명산업의 글로벌화

* 5대 농생명클러스터 : 식품(익산), 종자(김제) ICT농기계(김제), 미생물(정읍), 첨단농업(새만금)

- 정부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 중

- 전북에 조성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집적화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연구(농촌진흥청 등)~실증(실증단지)~검증(농업기술실용화재단) 체계를 구축해 기술혁신과 농업 및 전후방 산업의 혁신성장모델 구축

□ 전북은 농생명 직업 관련 인프라 우수

- 전북 혁신도시에는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농업 전문직업체험관 건립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인프라 우수

-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 5개 농업연구기관에 약 1,800여명의 전문인력 종사

- 또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미래 정예 농업 CEO를 양성시키는 한국농수산대학과 안심먹거리, 건강기능성식품, 바이오신소재개발 등 식품과학기술 연구를 통해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한국식품연구원 입지

- 혁신도시에서 멀지 않은 정읍시에는 농업의 산업적 가치를 확장시킬 수 있는 미생물 및 바이오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정부기관 소재
 - 미생물융합기술연구, 농업신소재연구, 기능성식품연구 등 미생물 특화 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과 첨단방사선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입지
- 농업의 후방연계산업(종자, 농기계, 농자재)과 전방연계산업(식품) 육성을 위한 핵심시설과 인프라가 집적화되어 있어 미래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테마의 직업 현장 보유
 - 후방연계산업 : 첨단농기계클러스터(2008년), 방사선 육종연구센터(2009년), 민간육종연구단지(2011년)
 - 전방연계산업 : 국가식품클러스터(2007년),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2011년), 미생물가치평가센터(2013년)

2. 농업 전문직업체험관 조성(안)

1) 개요

-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해오고 있는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 및 농업 연관 분야의 직업에 대한 체험과 탐색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과 관련된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시키는 핵심기관
- 위치 : 전주·완주 혁신도시 인근 또는 남원 가축유전자원센터 부지
- 대상 : 어린이 및 청소년(초·중·고등학교 학생)
- 체험유형 : 간접체험 + 모의체험 + 직접체험
 - * (간접체험) 직업인 인터뷰, 직업인 강의·간담회, 직업정보 활용, (모의체험)모의실습, 가상체험, 시설체험, (직접체험) 현장실습, 현장견학, 직무관찰·탐방

2) 기본방향

□ 다양성 : 농업을 넘어 혁신산업 체험

- 종자, 생산, 가공, 유통 등 농업가치사슬과 연계된 다양한 직업체험
- 농자재, 식품 등 농업의 전후방 산업, ICT, 과학, 문화예술, 의료·복지 등 농업과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혁신차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직업체험

□ 전문성 : 전북의 농생명 특화자원 연계·활용

- 국가차원에서 전북을 농생명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간육종연구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농기계클러스터 등의 기관 및 시설들을 연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전북에 집적화된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등 정부 산하의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을 활용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확장성 : 직업체험의 리뉴얼 및 현장체험

- 농업 관련 직업체험이 설립 초기에 구성된 확정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양하고, 전북에 입지한 정부 산하의 농생명 기관들이 참여하는 기획체험 등을 도입하여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전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는 농생명 기관들과 연계하여 현장 직업체험을 운영하고, 농업 관련 단체 및 공동체,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운영하고 있는 현장 활용

3) 주요시설

- 농업 직업정보관 : 농업과 관련된 현존하는 다양한 직업과 미래 농업의 직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사전정보를 취득하는 공간
- 농업 진로 탐색관 : 농업에 대한 흥미테스트, 직업심리 테스트, 재능 및 적성검사 등을 통해 나만의 진로계획을 탐색해보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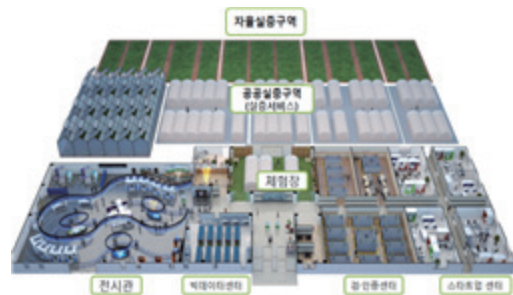
- 농업 직업체험관 : 농업 관련 직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체험을 통해 진로를 구체화하고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하는 공간
 - 혁신농업, 사회적농업, 미래농업, 플래너, 국가기술자격 등

- 직업 설계관 : 농업 직업 정보에 대한 이해, 진로 탐색, 직업체험 등을 통해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설계해보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공간
- 부대시설 : 에듀팜, 농가카페, 농가레스토랑, 주차장 등

4) 주요 직업체험 프로그램

□ 혁신농업 존

- 농업과 4차산업혁명기술의 융복합으로 등장한 스마트농업, 정밀농업, 치유농업 등 혁신농업 직업에 대한 체험
 - 스마트농업 : ICT를 축사·온실 등에 접목해 스마트폰, PC를 통해 원격·자동으로 가축과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리하는 농업으로 전북에 조성될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스마트팜 실증단지 연계 활용
 - 정밀농업 : ICT를 활용해 노동력, 비료, 물 등 노동력 투입을 최소화하는 반면, 생산량은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농촌진흥청과 공동 기획 및 운영
 - 치유농업 : 원예, 동물, 농식품, 농촌환경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치유, 교육, 사회적 재활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농업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원이 공동 기획 및 운영



자료 : 농식품부(2018), 스마트팜 확산방안

□ 사회적농업 존

- 사회적 소외계층을 통합하는데 기여하는 농업을 넘어 농업(산업)과 농촌(공간)을 매개로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시키는 농업기반 직업 체험
 - 도시농업,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원순환 농업 등

□ 미래농업 존

-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농경지 기반의 농업에서 우주, 바다, 사막 등에 적용 가능한 미래 농업에 대한 직업 체험

- 우주농업(우주개척과 우주 식량 개발: 정읍 첨단방사선 연구소 연계), 바다농업(바다의 풍부한 수자원과 넓은 공간 활용), 극한지 농업(사막내 빌딩형 식물공장, 지하 녹색농업 및 먹거리 생산) 등

□ 플래너 존

- 식량생산, 삶의 터전 등 농업·농촌의 단순 기능에서 공익적 가치 등 다원적 기능이 중요해짐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귀농귀촌, 팜파티 등과 관련된 계획가로서의 직업 체험
 - 귀농귀촌 플래너, 협동조합 플래너, 팜파티 디자이너, 농촌교육농장 플래너, 농가카페디자이너 등

□ 국가 전문기술자격 존

-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반려동물 증가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국가차원의 전문기술자격과 관련된 직업 체험
 - 농산물품질관리사(농산물의 원산지 표기 검열 및 등급 판정), 유기농업기사(입지 및 작물선정, 브랜드개발 등), 반려동물관리사(위생관리, 미용, 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 기타 시설원에 기술사, 화훼장식기사, 식물보호기사, 식육처리기능사 등

□ Me&My Agri-city

-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금융, 식품기업, 연구기관, ICT 기관 등 농생명과 관련 된 직업으로 구성된 가상의 미니어처 도시로 실제 사회생활 모의 경험
- 비영리 교육재단 형태의 진로체험 교육장으로 농생명 관련 기업의 스폰서를 통해 운영
 - * (사례) 핀란드 Me&My City : 2010년 500㎡ 규모의 공간에 정부 지원과 현지 기업의 스폰으로 진로체험 교육 프로그램 시작. 학생과 기업의 호응도가 높아 1년만에 6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 정규교육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접목되면서 참여자들이 원원하는 모델 창출로 평가